



INDEX

1면 인사말 - 이인숙 간호대 학장

2면 간호대학 소식

▷연구실 탐방

방문건강관리교육·연구센터

▷평창 그린바이오 멀티캠퍼스

간호대학 Wellness Care 연구소 기획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2010년 간호대 우수교육상

▷신임교수소개

아동간호학 - 방정숙 교수

아동간호학 - 채선미 교수

외국인교수 - 최희승 교수

▷교수동정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 최명애 교수

한국간호과학회 간호과학자상

-김금순 교수

명예교수 활동 - 이소우 교수

7면 학교행사

▷본교 교수진 자매대학 Health Science

University of Mongolia, School of Nursing 방문

▷2010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30, 40, 5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

▷신, 구학장 이·취임식

▷13동(구 천연물과학연구소) 리모델링 완성

▷2011년도 간호대 교수 Workshop

▷2011년 제 5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8면 학생활동 I 학부

▷2011년도 간호대 학생회 발족

▷2010년도 오이타, 메리랜드 대학과의 국제교류

University of Maryland 하계 단기 연수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하계 단기 연수

▷2010년 간호대 진로캠프 성료

▷관악봉사상 및 체험수기

▷세계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참가 후기

▷동아리탐방

▷장학금 기탁

김승태 선생님 장학금

본교 동문(익명) 장학금

▷2011년 신입생 입학 전 교육프로그램 및 새터

▷2011년 학부 전기 졸업 총장상, 간호대 최우수상 수상자 인터뷰

11면 학생활동 II 대학원

▷나의 서울대 간호대 유학생활

인사말

실제 지역적 기온 측정의 결과는 모르나 연건 캠퍼스는 건물에 가득한 도심 가운데 있으면서 봄이 늦게 오고, 일시에 옵니다. 연건 캠퍼스 안의 “간호학문 권역(Nursing Zone)”은 봄별이 가득한 경모궁을 있는 함춘문 뜰 가운데 있어 별가득한 가운데서도 쌀쌀한 바람을 맞고 있는 시기입니다.

2011년 첫 번째 소식지입니다.

소식지를 만들며, 간호대인들이 품고 있는 간호대학 발전에 대한 열망과 학문발전을 향한 차분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드러났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하여, 인접학문에서 그리고 전혀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하던 학문영역에서 호기심 있는 관심이 일기를 기대합니다.

간호대학은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 사회의 인재를 육성함을 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입각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간호인재의 양성, 간호연구를 통해 21세기 간호지식과 기술의 생산 및 확산의 구현, 한국간호의 발전과 세계간호의 선도를 비전으로 지난 100여 년간 간호학 고유의 진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향후 2년간(2011~2012), 서울대학교는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법인화, 멀티캠퍼스 조성 등의 큰 변화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로서, 간호대학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간호대학은 “실천적 참여를 통한 대학발전의 초석 다지기”의 시기로 규정하

였습니다. 학생과 교수 모두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장기적 발전과 캠퍼스의 wellness를 확보하기 위해 도전을 발전적 변화로 전환하는 적극적 참여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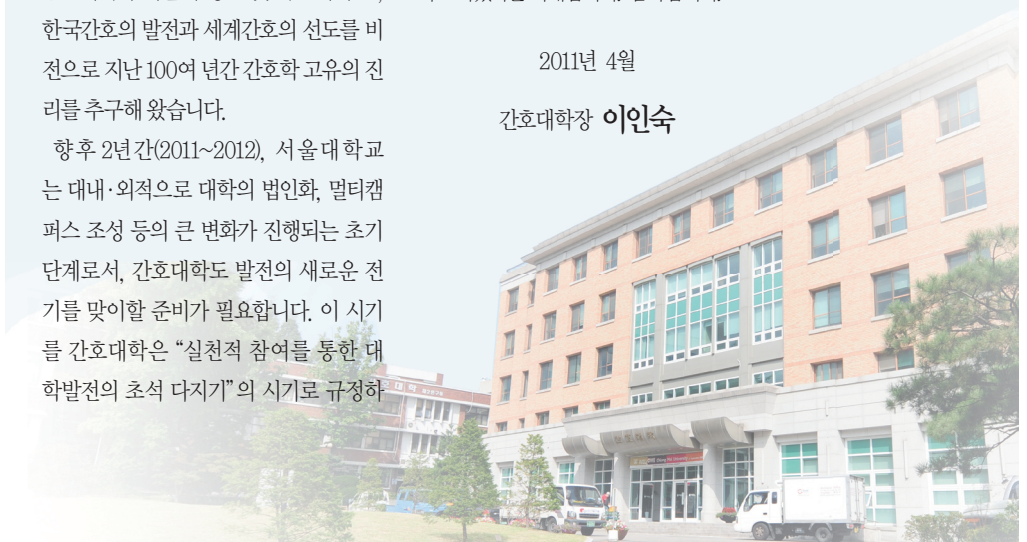
인구노령화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강증진적 요구는 간호학문의 사회적 기여부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제로 연구소의 특성화와 국제적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 간호연구와 교육의 통합을 통해 대학의 수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대학 법인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의 마련과 멀티캠퍼스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간호를 통해 인류의 건강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원대한 꿈을 간호학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긍지와 희망을 갖도록 지원하며, 이들이 간호계, 여성계의 리더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발간되는 제 2호의 소식지에서 그 움직임이 보여졌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간호대학장 이인숙



간호대학 소식 01

연구실 탐방

방문건강관리 교육·연구센터- 이인숙 교수

간호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2개 구(區)보건소로 부터 위탁받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업과 현장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간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게 가정중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빈민정책에서 유효한 서비스전략으로 추천하고 있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가족을 기본단위로 가족과 건강에 대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힘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재정비하고, 취약계층 주민에게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국가 “New Health Plan 2010”의 건강 종합목표인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간호대학은 2002년부터 국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온 “대도시방문건강관리”의 자문과 평가 연구에 개입하며, 2007년부터 본격화한 국가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틀과 운영전략 구성에 기여하였다. 그 이후 국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책연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해 왔다.

1.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기술지원. 평가 위한 품질관리프로그램 운영(2007)
2. 한국 빈곤가족의 건강취약성과 가족기능회복과정 분석:간호학적 관점
3. 여성가장가족을 초점으로(2007)
4. 허약노인 사례관리 및 허약평가도구 개발연구(2008)
5. 노인의 주요 건강문제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 개발(2009)
6.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 스크리닝과 중재적용 평가(2010)

본 연구 세팅은 연구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현장의 다 영역 전문인력(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의사)으로 구성되어 현장사업의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적 연구와 누적된 연구 DB를 통해 등록된 취약계층 주민의 장기적인 건강현상과 자기관리 행태 변화 그리고 사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노인의 삶의 질 측면과 건강수명 연장, 국가 사용의료비 절감측면에서 노인의 의존성, 허약성 예방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원생의 논문 주제로 취약계층 노인의 의존성, 낙상 두려움 및 낙상현상과 영향요인, 노인의 침거양상, 허약성 예방 표준중재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노인의 허약예방과 지역사회 관리에 대한 연구는 세부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지역사회의 예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참여기전, 자원동원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취약계층 만성질환관리 방식으로 방문간호서비스와 U-health의 동시 적용방안의 마련, 효과와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자기관리를 위한 행위변화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간호대학에서 R&D 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의 개발과 현장연구에 몰입하는 이유는 국립대학으로서 가지는 국가사업안정화와 표준모델 개발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과 간호학의 고유 정체성을 실천하고, 모델현장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 주기별 방문건강증진프로그램 발전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200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코호트구축 및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2008)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별 제공 서비스 확대방안(2008)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가구별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방문선임인력 및 신규인력 직무 매뉴얼 개발 연구(2010)

또한 해당 인력의 교육을 위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원·방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진행하여,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인력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표준 프로그램 개발과 취약계층의 삶의 현상을 기술하는 현장연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간호대학 소식 02

평창그린바이오 멀티캠퍼스 - 간호대학 Wellness Care 연구소 기획

간호대학은 2012년 4월 준공을 앞둔 강원도 평창 소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내의 Wellness Care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 Wellness Care 연구소는 간호의 대상자인 개인과 집단이 최상의 안녕상태(wellness)에 도달하도록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며, 도출된 결과를 확산,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소는 일반인과 만성질환자, 암환자, 소아 아토피 및 과잉행동장애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기능과 사업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현재 사업 모델의 추진을 위한 협력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

Wellness Care 연구소의 모든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건강습관 개선을 위해 강점과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프로그램에는 자신감 증진, 긍정적 자아상 개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활동을 기본 전략으로 사용할 것이다. 현재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8명의 교수진은 건강 증진과 건강행위 변화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Wellness Care 연구소 프로그램의 이론적 틀을 수립하고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협력업체와 협약 이후에는 학교 연구팀과 협력회사 현장운영조직에서 연계하여 실시할 것이다.

본 연구소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로서 대학-관-지역사회의 협력적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실시로 평창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지역 밀착형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둘째, 교육 연구효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 교육 현장을 확보하고 이론적 기반의 간호중재 개발을 통한 학문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서울대학교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간호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확산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보급, 전문인력 교육 등으로 대학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간호대학 소식 03

간호과학 연구소 소식

간호과학연구소/간호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



2010년 10월 29일(금) '전문간호사 역할의 제도화 전략: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접근방안'을 주제로 간호행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진현 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간호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전문간호수가의 개발과 인력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등 전문간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보상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충섭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주제발표에서 "전문간호사 양성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전문간호사가 환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맡은 정명숙(간호행정학회장, 경상대), 성영희(성균관대), 송경자(서울대병원), 이태화(연세대), 임병목(부산대), 김경숙(남서울대), 김금순(서울대), 설미이(서울아산병원), 조은희(연세대),

주세진(남서울대), 유호신(고려대), 김운미(을지대),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현진(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병원간호사, 교수, 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간호사의 미래를 논의하는 열띤 자리가 되었다.

간호과학연구소 학술지 "간호학의 지평" 발간

창의적인 이론 개발과 열린 학술공간을 지향하는 간호과학연구소 학술지 '간호학의 지평(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은 향후 한국연구재단 등재를 목표로 2011년부터 6월과 12월, 연 2회 발간된다. 구체적인 투고 규정 및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rins.snu.ac.kr>)를 참고.

2011년도 수요세미나

간호과학연구소는 2011학년도 1학기 학술세미나를 격주로 수요일 12시~13시에 간호대 신관 502호에서 개최한다. 다학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총 7회 중 5회는 인문사회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타 대학의 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2회는 건강증진연구의 최신 지견을 논의한다.

일자	주제	발표자
3월 23일	조선왕실에서 읽은 소설	임치균 (한국학중앙연구원)
3월 30일	조국, 대한민국에 고하다	조국 (서울대 법대)
4월 6일	Raising children away from home : experiences of Korean parents in America	최희승 (서울대 간호대)
4월 27일	영국 현대 미술과 문화 속의 빅토리아와 대처의 유산	김정희 (서울대 미대)
5월 11일	Analysis of weight control in Korean adolescents using transtheoretical model	채선미 (서울대 간호대)
5월 25일	음악과 페미니즘	민은기 (서울대 음대)
6월 1일	유럽영화의 새로운 경향-스페인 영화	김호영 (한양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간호대학 소식 04

2010년 간호대 우수교육상 서은영 교수 인터뷰



장명석, 조운정 학생(이하 장명석, 조운정): 안녕하세요? 우선 2010년도 우수 교육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명강의로 유명한데요,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서은영 교수(이하 서은영): 상을 주셔서 학생들에게 고맙고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상을 받을 만큼 우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바빠서 제가 기대한 만큼 교육에 몰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만큼 이번엔 주신 상은 정신차리라는 뜻으로 여기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명강의의 비결이요?(웃음) 학생들이 저의 강의를 명강의로 평가해주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이는 임상에서 1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환자들과의 경험, 환자들로부터 배웠던 인생의 지혜 등을 학생들과 최대한 나누려고 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들이 내 강의의 독특성을 만들어 학생들이 명강의로 여겨주지 않았을까요?

장명석: 강의나 실습에서 보여주시는 모습 이외에도 교수님께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 한 분으로 꼽힙니다. 어떠한 점이 학생들의 존경을 이끌어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은영: 쑥스럽지만, 훌륭한 간호대학 교수는 훌륭한 간호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저를 훌륭한 간호인으로 만들기 위해 매 순간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도를 닦는 기분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 책을 볼 때, 임상에서와 같이 훌륭한 간호인이 되려 노력합니다. 제가 수행의 길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노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저같은 간호인이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런 면들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운정: 평소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교류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서은영: 지나갈 때마다 학생이 보이면 꼭 이름을 묻거나, 말을 걸어보거나 혹은 인사를 건네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가정에서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머리카락, 손가락 하나도 다 예쁘고 귀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나, 면담을 요청하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일정을 맞추는 편입니다. 물론 평소 많이 바쁘지만 학생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저의 시간을 뺏기더라도, 하늘이 어떻게든 연구나 업무를 미뤄짐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석: 평소 가지고 계시는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은영: 제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은 나 자신에게 완전히 체화 된, 혹은 내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만 학생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 학생들도 저와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훌륭한 간호인이 되면 학생들이 저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운정: 2010년 실습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서은영: 제가 지도를 맡았던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실습 시 가장 중점을 두

었던 것은 간호술기를 넘어선 간호인으로서의 태도 또는 환자들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명석: 평소에 학교 보직을 비롯하여 교육, 연구, 가정 일 등으로 매우 바쁜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수퍼맘(super mom)이신데요(웃음), 성공적인 수퍼맘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서은영: 그냥 굴러가는 것 같네요. (웃음)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편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의 최우선은 저와 함께 하는 예쁜 학생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제 직함, 즉 학과장과 관련된 일, 강의 준비, 연구, 논문과 관련된 일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최우선 순위인데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교재나 교육 방법 보다는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늘 앞에서 열심히 땀땀하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런 저의 진심을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운정: 미국에서 PhD과정과(Doctor of Philosophy), NP(Nurse Practitioner) 과정을 같이 이수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은영: PhD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박사과정이고, NP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추가 연수를 받는 과정입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 NP는 간단한 진찰과 처방전 쓰기 등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NP는 전문간호사로서 환자의

제일 가까이에서 간호를 수행하는 실무적인 부분, 즉 예를 들어 청진기 하나로도 환자의 기본적인 신체 검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간호사로서 저 자신을 준비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지 않는 인문학적인 부분(예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답론)을 생각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웃음)

장명석: 마지막으로 간호학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은영: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조심스럽네요. 간호는 기술도 아니고, 단순한 회생을 요하는 봉사직도 아니고, 의사의 보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는 준비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과학적 기술을 배우고 적절한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 할지라도 환자가 그 질병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간호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명석, 조운정: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1년 새 학기에도 교수님의 간호에 대한 열정이 담긴 명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 2학년 장명석, 조운정

간호대학 소식 05

신임교수 소개

●아동간호학-방경숙 교수

서울대학교에 새내기로 첫 발을 내딛었던 1981년으로부터 30년을 꼭 채운 2011년, 간호대학 1학년 새내기들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수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또한 엄마처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또한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간호계의 리더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200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아주대학교로 부임하여 10년간 있다가 2010년 9월 모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81년엔 학생으로 90년엔 조교로, 2000년엔 박사로, 2010년엔 교수로... 많은 시간을 연건에 머물렀지만 그동안의 10년이 마치 한 해씩인 듯, 고속선을 타고 훌쩍 훌쩍 뛰어 넘어온 것만 같습니다. 떠나있어도 늘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교수생활의 모토는 학생의 눈높이에 교육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환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간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합니다.

전문직에 대한 관심 하나로 선택했던 간호학에 대한 매력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전공과목 수업과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이 되면서 간호의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가장 흥미 있었던 아동간호학을 세부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분야는 아동의 건강증진, 부모교육, 모아상호작용 등에 관한 것으로, 평생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아동기부터 건강하게 잘 발달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아동간호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통해 한층 성숙한 인간성을 갖추게 되는 학문이 간호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호학과와의 긍정적인 면들을 생각하며 좀 더 즐겁고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을 해나갔으면 하는 당부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동간호학-채선미 교수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동간호학을 가르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습니



다. 저의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학부과정의 한 해, 한 해를 거듭해 감에 따라 증폭되어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원에서 아동간호 전문간호사(Pediatric Nurse Practitioner) 과정을 전공하면서 아동간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었고 제 평생을 함께 하게 할 전공 분야로 아동간호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이 아동간호학의 매력에 동참할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예비간호사입니다. 학생들에게 간호, 특히 아동간호에 대한 비전을 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지도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관심 연구분야인 저체중 출생아의 이행간호, 아동의 체중조절 및 비만예방, 태내 약물 노출 아동의 행동 변화 등과 관련하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인생은 초콜렛 상자와 같은 것, 당신이 무엇을 집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쓴맛의 초콜렛이 될지 아니면 달콤한 맛의 초콜렛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을 접하더라도 삶의 비전이 확고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간호대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각자가 원하는 삶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 위에 세워질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길 바랍니다.

●외국인 교수-최희승 교수

이윤경 학생(이하 이윤경): 우선 서울대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희승 교수(이하 최희승): 한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서 아주 설렘니다. 그리고 매일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 보이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윤경: 서울대 부임하시고 서울대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최희승: 학교에 처음 부임한 2월은 방학이라서 학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강 후 처음 보게 된 학생들의 인상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로 생각되는데 불구하고 약간 의기소침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대

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신 있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라면 자신감이 넘쳐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의외였습니다. 물론 아직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표출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로 학교 건물과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윤경: 향후 계획하고 계시는 학문 연구 방향이나 분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최희승: 청소년 우울증,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고 이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청소년 문제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이민자로 살아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윤경: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간호학에 대한 철학이 궁금합니다.

최희승: 거창하게 간호학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보살핌을 받고 있고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떠한 사람의 생리적 문제 건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간호라고 생각합니다.

이윤경: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면 해주세요.

최희승: 가끔씩 “난 죽어도 저건 절대로 안 할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죽어도 박사는 안 해” 라고 했는데 지금 박사가 되어 있어요.(웃음)

제 생각으로는 “절대”라고 말을 해버리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리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깥 세상에 대해 열린 시야, 열린 가능성을 항상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비해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학생들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닐까요?

◎인터뷰 : 2학년 조윤정

간호대학 소식 06

교수동정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최명애 교수



서울대 간호대 최명애 교수가 한국간호과학회 제 22대 회장(임기 2010년 1월 ~ 2011년 12월)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에 창설되어 현재 3,400여명의 간호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이다.

회원의 구성은 133개 간호교육기관 및 간호학 관련 연구소에 재직 중인 교수를 위시한 연구원 및 간호계의 지도자로 되어있다. 간호과학회 설립의 기본목표는 간호학 연구와 국내·외적 학술활동을 통하여 간호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의 신기술 개발과 주요 정책수립에 기여하며 타 학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한국 간호과학회는 2010년 추계 학술대회 및 2011년 제14차 동아시아간호포럼 (EAFONS: East Asia Forum of Nursing Scholar)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현재 임원진으로 간호대 이인숙 교수, 김성재 교수가 국문 편집위원장과 총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간호과학회 간호과학자상-김금순 교수



지난 2011년 1월 간호대 김금순 교수가 한국 간호과학회 제 4회 간호과학자상을 수상하였다. 간호과학자상은 우수한 학문 연구 성과로 간호과학 발전에 공헌한 간호과학자를 발굴, 포상하여 국내 간호과학 연구 활동의 사기진작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명예교수 활동-이소우 교수

이소우 명예교수는 현재 일본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이하 Oita 대학)에서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Nursing 교실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간호대 정년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소우 교수를 학생회 장명석 학생이 E-mail을 통해 인터뷰 하였다.

장명석 학생(이하 장명석):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09학번 장명석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만나 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현재 교수님께서 계시는 Oita 대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소우 교수(이하 이소우): Oita 대학은 1994년 7월에 대학 설립을 위한 오이타현(Oita prefecture)에서의 준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건물을 완성하고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의 인가 절차에 의해 1998년 4월에 대학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인적 지원을 받고자 공식적으로 교수 자원요청이 있었던 바, 당시 학장을 끝내고 정년이 되신 현 홍여신 명예교수님께서 초대교수로 영입이 되셨지요. 초대학장으로는 동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Tomoko Kusama(RN: Registered Nurse)교수가 발령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대학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교육부에서 간호학석사 과정을 인가 받았습니다. 대학소개에 대해 또 하나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학교 건물입니다. 간호학 단과대학이지만 (일본에는 4년 학사과정 현립 간호대학이 많음) 19.49 acres에 달하는 대지에 4.2 acres의 학교 주건물과 컴퓨터 네트워크 빌딩, 그리고 실습을 위하여 별도로 오이타현립병원 옆에 "clinical instruction center" 임상실습 센터 빌딩이 있습니다.

학부 학생수는 각 학년 80명이 정원이며 대학원(석사 과정) 학생수는 36명입니다. 그 외에 6개월 과정으로 인정간호사(임상 경험자로 졸업간호사)라고 불리는 advanced nursing 프로그램이 있고 정원은 15명입니다. 교수 수는 조교를 포함하여 60여명 있으며 시간제 교수 또한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장명석: 현재 Oita 대학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며 Oita 대학과 서울대학교 간호대와의 관계 증진에 어떤

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소우: 저는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Nursing" 교실의 교수로 이곳 대학의 교수와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학생 강의, 연구지도(석사,박사 학생 각각 한 명씩 지도교수로 있음), 회의 참석, 학술 및 학교 행사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관해 조금 더 언급하자면 한국,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각 나라의 간호학 교수와 교류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Oita 대학의 전문간호사과정 대학원생의 임상실습을 위해 학생들을 인솔하여 한국의 각 기관을 방문하는 수업체험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Oita대학 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Oita대학에서 국제교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교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뿐만 아니라 국제 학회를 통해 한국의 많은 간호대학과 일본, 특히 Oita현의 건강기관과 대학 방문을 요청하여 일년에 평균 3~4회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런 저런 얘기를 쓰다 보니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은데,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그리고 장명석군도 이번 여름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직접 체험하면 더 좋겠군요.

장명석: 바쁘신 와중에도 E-mail에 정성껏 답변해주신 이소우 명예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소우 교수님을 비롯하여 정년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 연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명예 교수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2010년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과의 국제교류, 좌측 상단이 이소우 명예교수.

학교행사 01

본교 교수진 자매대학 Health Science University of Mongolia, School of Nursing 방문

본교 간호대와 몽골보건과학대학(HSUM)간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2010년 7월 8일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간호대학과 공동으로 “Nursing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s”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교에서는 간호대 송미순학장, 이인숙교수, 김정은교수, 김진현교수가 간호학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몽골간호대학에서는 Khulan교수가 간호연구설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보다 앞서 2010년 3월에는 몽골의 간호대학 교수 12명이 본교 간호대학과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였

으며, 몽골의 간호대학 학부과정 교과서 개발에 대해 협력하기로 논의하였다. 두 대학은 향후 지속적으로 학술교류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0011년 여름방학기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2회 국제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몽골보건과학대학에서의 워크숍



학교행사 02

2010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30, 40, 5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



지난 2010년 10월 14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졸업 30, 40, 5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가 개최되었다. 동문 40여명은 캠퍼스 투어를 하며 서울대학교 미술관 및

규장각, 간호학 박물관을 관람하였고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 3,12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였다. 동문들은 간호대학장 동창회장 초청 환영 오찬 시간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스승, 동문과 답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30주년 동문들은 모교방문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 국내외 간호학의 최신 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다.

학교행사 03

신, 구학장이 · 취임식

2011년 1월 10일 간호대학 103호 강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행사는 제 10대 송미순 전 간호대학장의 이임사를 시작으로 제 11대 이인숙 간호대학장의 취임사가 있었으며 공로패 증정 및 학부생들의 꽃다발 증정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홍여신, 박정호, 이수우 명예교수,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에 간호본부장을 비롯하여 동문 선후배 11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11년도 제 11대 간호대학장단 인사는 아래와 같으며 간호대학 발족 후 처음으로 부학장과 분리된 학과장직이 신설되었다.

— <제 11대 간호대학장단> —

학 장: 이인숙 교수
부학장: 김성재 교수
학과장: 서은영 부교수

학교행사 04

13동(구 천연물과학연구소) 리모델링 완성

2011년 1월에 간호대학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13동 리모델링 사업이 완성되었다. 서울대 간호대는 2008년 천연물과학연구소 관악 이전으로 이양 받은 연건캠퍼스 13동의 3층을 2009년에 리모델링하였고, 이제 13동의 나머지 1층, 2층, 4층의 리모델링을 완성하였다.

총 연건평 2,190㎡(663평)을 리모델하는데 총 23억원이 소요되었다. 13동 1층에는 강의실을 비롯하여 학생회실, 세미나실, 정신간호학 실습실, 운동실, 휴게실 등이 신설되었으며 2층에는 총 4개의 실습실이 신설되어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실습실 등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4층에는 약 10여개의 대학원생 연구실이 신설되어 본관과 제2연구동에 분산되어 있던 대학원생 연구실을 모두 제2연구동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낙후되었던 구관의 화장실과 용역인력의 휴게실도 리모델링하여 구관 전체가 새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구관과 13동을 포함한 제 2연구동의 리모델링 완성이 간호대는 학생교육, 연구와 실습을 위한 공간이 확충되고, 개선되어 세계적인 간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갖추어졌다.

학교행사 05

2011년도 간호대 교수Workshop

2011년 2월 16일~17일 양일에 걸쳐 2011년 간호대 교수 동계 워크숍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 교수 및 조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간호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학교행사 06

2011년 제 5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1년 3월 2일 간호대 강당에서 제 5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렸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시작 하기 전에 교내외 인사 및 선후배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촛불의식 행사이다.

이날 선서식에는 본교 박명진 교육부총장, 정희원 병원장, 김명에 간호본부장, 임정기 의과대학장, 최순철 치의학대학원장, 최민호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장기택 치의학대학원 교무부학장을 비롯하여 본교 교수, 많은 학부모와 동문선배들이 함께하여 학생들을 축하해주었다.



학생활동 | 학부 01

2011년도 간호대 학생회 발족



2010년 12월부터 간호대 학생회장 송수연(08, 좌측사진)과 부학생회장 최지민(09, 우측사진)을 비롯한 복지/홍보부, 문화기획부, 학술부로 구성된 제 20대 간호대 학생회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신의 삶에 주목하고, 행동합니다'란 모토를 가진 제 20대 간호대 학생회는 회장단과 각 부서가 협력하여 다양한 일들을 추진 중이다.

복지/홍보부는 간호대 재학생들의 복지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홍보하는 부서이다. 문화기획부는 간호대와 관련된 모든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부서이다. 마지막으로 학술부는 학생들에게 학술관련 정보, 학과 관련 정보,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따른 세미나 혹은 강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회장단과 각 부서는 작년 12월에 수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과 함께하는 OT를 추진하였고, 올해 1월에는 신입생 정기 논술고사 응원과 간호국가고시를 준비하여 많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만날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2월에는 3,4학년을 대상으로 식권을 모금하여 새터 조장 선배들에게 나누

어주어 새내기와의 교류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고 환풍기와 같은 학교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신속히 해결하였다. 새내기 배움터를 추진하여 많은 재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알찬 새내기 배움터 일정을 꾸며 새내기와 재학생들이 뜻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선후배간에 필요한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학생들의 책값 부담을 덜어주었다. 전체 재학생이 함께하는 연탄 봉사도, 간호대학 학제 일원화 공청회에도 다녀오며 학교 외부의 다양한 행사에도 관심을 가졌다. 올해 3월에는 기숙사 아침식사 제공, 기숙사 내 통화 품질 개선 등 학생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연건 캠퍼스 학생들의 교양과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연건 교양사회과학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추진 중이다. 20대 학생회는 학생회의 존재가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을 대표함으로써만 끝나지 않고 학생과 학교, 학생과 교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과 꿈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생활동 | 학부 03

2010년 간호대 진로캠프 성료



지난 2011년 11월 13~14일, 간호대 학생회는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제 1회 간호

대 진로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열리게 된 것으로, 간호학과를 졸업한 선배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음은 물론 간호학과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

학생활동 | 학부 02

2010년도 오이타, 메릴랜드 대학과의 국제교류

●University of Maryland 하계 단기 연수

최현지(07), 안유진(07), 권다은(08), 박현주(08) 총 4명의 학생은 지난 2010년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3주 동안 미국 동부의 Baltimore, Maryland에 위치한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Nursing로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미국 간호사의 실무, 간호 교육 체험,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간호에 대한 체험 등을 통한 국제적 안목 향상, 전반적인 미국 문화 체험 등을 목적으로 University of Maryland 뿐만 아니라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enter, Howard County General Hospital, Grass Root (무숙자 쉼터) 등을 견학하였다.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하계 단기 연수



지난 2010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오상준(05) 학생을 비롯한 김하나(08), 김유경(09), 이효원(09), 조아라(09), 허슬기(09) 학생 6명은 본교 고진강 교수 인솔하에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로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장소로는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를 비롯하여 Yufuin Kohseinenkin(こう-せいねんきん) hospital, Oita Prefectural Hospital, Shono Maternity Clinic, Oita Public Health Center, Oita Western Public Health Center, Hyakkaen Nursing Home 등이 있었다.

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캠프에는 신순애(87,국민건강보험공단), 류선주(89,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은주(03,대한항공), 김혜진(95,보건교사), 심은혜(96,보건복지부) 동문이 참석해 주었다. 당시 진로캠프를 진행하였던 제 19대 간호대 학생회장 최진아 학생은 "학생회

에서 처음 개최하는 캠프라서 진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 선배님들께서 흔쾌히 강연부탁에 응해주셔서 캠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하여 선후배간의, 동기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학생활동 | 학부 04

관악봉사상 및 체험수기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수상작 본문요약 - 요셉의원 : 매캐한 영등포역의 희망 한 시간



구보연(간호대 08학번)

요셉의원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은 다름 아닌 서울대 학생계시판 ‘스누라이프’였다. 요셉의원 설립자를 추모하는 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나 에겐 조그마한 행동의 변화까지 불러일으켰다. 절대적인 봉사시간으로는 일반 농활이나 해외봉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국내에도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조차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행려병자들의 존재를 아는 간호학도로서는 이곳에서의 봉사가 당연한 선택이었다.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병원 실습이 있는 학기 중에 한 시간을 봉사하러 왕복 두 시간 거리의 영등포에 발걸음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도 잠시, 이곳에서의 활동은 개인적인 성찰의 기회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봉사를 하면서 겉으로 보였던 내가 조금 작아진 반면 내면의 나는 한 주 한 주를 더해갈수록 커졌다. 나는 이곳에서 절대적인 빈곤이 무엇인지 보았고, 비로소 현재의 축복에 눈을 뜰 수 있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는 행위의 참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 행동에 ‘보상’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봉사도 만 1년을 넘어가고 있다. 절대적인 봉사시간으로는 일반 농활이나 해외봉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국내에도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조차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행려병자들의 존재를 아는 간호학도로서는 이곳에서의 봉사가 당연한 선택이었다. 요셉의원은 이렇게 매주 한 시간 나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살아 춤추게 한다.

수상소감

사실 나의 활동은 총장상을 수상할 만큼 누군가에게 칭찬받을만한 것이 아니다. 전공분야를 살린 봉사와, 봉사수기를 기고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와, 학부생으로서 다양한 봉사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수기전의 취지,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 수상의 영광이 온 좋게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봉사는 생활습관이다. 나 또한 동기들의 다양하고 꾸준한 봉사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의 미약한 활동은 봉사상 수상에 그쳤지만, 수상 당시 나 개인이 아닌 간호대생으로 우뚝 섰을 때, 총장님의 손을 마주잡으며 간호대생으로서 박수갈채를 받았을 때의 환희는 잊지 못할 것이다.

제 64회 개교기념식장에서 빛난 것은 구보연이 아닌 간호학이었다.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생활동 | 학부 05

세계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참가 후기

최진아(간호대 08학번)

제 19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장으로서 나는, 2010. 11. 29 일과 30일 이틀 동안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 여성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여성, 변화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무장관, 제니 쉬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 영화배우 시고니위버 등 세계적인 여성리더들과 여성부장관 등 국내 리더들이 연설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국내 여러 기업체 및 기관의 여성리더 500여명이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여성과 글로벌 경제,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역경에 더욱 빛난 여성의 리더십, 여성과 기업, 그리고 미래의 여성리더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다양한 논의 중 기억에 남는 것을 뽑아보면, 콘돌리자 라이스 前장관이 “흑인, 여성에 대한 편견, 능력과 자신감으로 맞서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능력과 그것을 믿는 자신감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여성과 기업’을 주제로 한 세션 5에서 다양한 경험의 패널리스트들이 내린 결론인 “고위직에 여성 많은 회사가 주가는 높고 부패는 적다”라는 내용인데 실제 기업의 사례와 자료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며 고위직에 여성이 많은 것이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

셋째로 이자벨 아길레라 이사가 이야기한 “여성의 약점인 감정”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을 여성의 섬세함으로 극대화시켜서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하라는 데 있어서 공감했다. 여성의 이러한 면을 감추거나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만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살리자는 점에서 마음에 남았던 것 같다. 세계적인 여성리더들이 오시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가슴 벅차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행사에 참여해 여성리더로서의 삶과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니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여 세계적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간호대학 후배들도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휴게실에 강연내용이 요약된 책자를 비치해놓았다. 강연 내용을 읽고 간호대 학생들도 ‘여성, 변화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미래의 여성 리더로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런 좋은 강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신 송미순 전 학장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



학생활동 | 학부 06

동아리 탐방

LNC(Leaders of Nursing Club)
LNC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내 자체 동아리로 Leaders of Nursing Club의 약자로서, 2009년 9월 11일 본격적인 간호대 동아리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2010년, 고진강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여 간호대 정식 동아리로 승인을 받았으며, 학기 중 혹은 방학기간 동안에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인터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회원(재학생)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미래의 휴먼 네트워킹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여, 단순한 친목 도모의 교류에서 나아가 간호학계의 학술, 홍보 등 관련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간호학과생으로서,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타 단과대학 재학생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간호대를 넘어선 휴먼 네트워킹 구축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학과에 대한 편견을 제고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학생활동 | 학부 07

장학금 기탁

김승태 선생님(의대 89년 졸업) 장학금

속초에서 서울이비인후과를 개업하고 있는 김승태 (의과대학 '89년 졸) 동문이 간호대학 합창반 후배 2명에게 2010년 1학기 등록금 50%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본교 동문(익명) 장학금

익명의 동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간호대에 합격한 1학년 학생에게 4년 동안의 학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학생활동 | 학부 08

설악산에서 열린 2011년 신입생 입학 전 교육프로그램 및 새터

2011년 2월 15~17일 2박 3일에 걸쳐 강원도 설악 일성콘도에서 2011년 신입생 새터가 열렸다. 새터에는 신입생 및 학부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서은영 교수(학과장), 방경숙 교수(1학년 담당)가 참석하여 학부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2011년 새터에서는 간호대학 입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이 열렸다. 올해 처음 실시된 입학 전 교육프로그램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초청 강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새터에서도 자신감 키우기 프로그램, 재학생 강의 등으로 이어졌다. 자신감 키우기 프로그램은 순천향대학교 엄영란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신입생들은 이를 통해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자신감 및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또한 재학생 강의에서는 대학 생활 안내, 연건캠퍼스 소개, 대학로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기(맛집 소개), 새내기 화장법/코디법, 대학로 공연 소개, 병원 임상 실습 경험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평소 신입생들이 궁금해 하던 연건캠퍼스에서의 대학생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유용한 시간이었다.

학생활동 | 학부 09

2011년 학부 전기 졸업 총장상, 간호대 최우수상 수상자 인터뷰

졸업식장에서 수석으로 단상에 서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바람일 것이다. 여기 그것을 이루어 낸 김다은 학생이 있다. 간호대 10학번 조윤정 학생이 08학번 김다은 학생을 만나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등을 인터뷰하였다.



08학번 김다은

조윤정 학생(이하 조윤정): 안녕하세요. 졸업 총장상&최우수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기본이 어떠신가요?

김다은 학생(이하 김다은): 정말 예상치 못했었고, 영광스럽습니다. 여태껏 석차가 잘 공개되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졸업할 때 밖에 탈 수 없는 값진 상이라 졸업식 날 단상 위에 올라갈 때 무척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조윤정: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김다은: 아무래도 암기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여러 차례 공부하여 힘든 점들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공부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동기들과 고민을 나누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위로와 조언을 얻었습니다. 또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친구들과 함께 LNC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많이 하며 진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난민, 기아, 에이즈에 관심이 많아서 Youth Clip이라는 국제 NGO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속에서 다양한 대학생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며 간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들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를 간호학에 연계시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정: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간호학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김다은: 간호학의 이과적인 학문이 아니라 문과적 성향도 많은 학문입니다. 다양한 학문의 특징들을 두루 지니고 있어서, 이런 모든 학문의 영역을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아프리카 케냐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1차적인 간호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간호학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윤정: 졸업 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다은: 2011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일하게 됩니다. 임상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여 간호학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간호학계의 리더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조윤정: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김다은: 어느 것에 대한 것이든 고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면서 끙끙 앓지 앓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선배나 과 선배, 학교에서 마련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하셔서 도움을 얻으세요. 진로에 대한 의문이 들거나 고민이 생길 때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학교 교수님들께도 상담을 많이 받고, 타 대학 모르는 교수님들께도 연락해서 상담을 받곤 했습니다. 혼자만 끙끙대기 보다는 주변의 교수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활동 | 대학원 10

나의 서울대 간호대 유학생할

성인간호학 석사 4학기 이화

고국인 한국, 그리고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인천공항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 어제 같은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의 유학생할도 벌써 1년 7개월이 되어갑니다. 석사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절, 집이 그리고 가족의 품이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워 외로운 밤이면 몰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이제 꿈처럼, 옛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에 언어적 어려움은 없었고 그래서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지만 가끔씩 저도 몰래 튀어나왔던 연변식 사투리 그리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겼던 작은 오해와 실수들이 유학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해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웃어주셨던 많은 대학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계셨기에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훌륭해진 오늘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2009년 추석 전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5명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푸짐한 송편을 챙겨주시고 따뜻한 안부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던 송미순 전학장님과 박현애 전부학장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유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기에 외국 땅에

서 맞이했던 첫 번째 큰 명절이 외로움 대신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외에도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풍부한 장학금 제도, 100% 학교기숙사 배정, 각 방면에서



한국학생들과 똑같은 기회제공, 쾌적한 연구학습환경을 제공해주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전체 교수님들과 행정부서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함을 받아주시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시며 내면의 잠재력까지 이끌어 내 주시는 교수님들의 배려와 사랑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한국 최고의 간호대학을 넘어 세계적인 간호연구의 산실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깊이의 성장, 수많은 좋은 인연들과의 만남, 다양한 문화적 경험, 그리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의 유학생할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이 추억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 보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한·중 보건의료의 가교역할을 하는 간호전문가, 세계 간호계의 리더로 성장하는 큰 꿈을 꾸며 매일매일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엄격한 스승처럼, 가끔은 다정한 친구처럼, 가끔은 인생의 선배처럼 저의 유학생할을 동행해주시는 고진강 지도교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질 좋은 학위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파이팅 하세요.

이 기회를 빌어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했던 당길명, 크리스티나, 이경순 등 유학생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10년 8월 21일~2011년 2월 28일

학사동문	김성재(1981)	박연환(1991)	윤계숙(1977)	최스미(1980)	대학원	기타
간호대 70년 졸업생일동	김승태(1989)	박영숙(1969)	이은옥(1963)	최재현(1975)	허성환	이남주 교수
간호대 80년 졸업생일동	김영애(1988)	박현애(1980)	이인숙(1977)	하양숙(1971)	(허보윤 2011	정재원 교수
고진강(1998)	김정은(1977)	방경숙(1985)	장선주(1998)	한경자(1967)	박사졸학부모)	Peter Garvin
김갑수(1983)	박명숙(1989)	서은영(1994)	조동란(1970)	홍경자(1966)		익명의 기부자 2
김금순(1972)	박성애(1970)	송미순(1974)	최명애(1970)			

간호대학 발전기금 문의처 : 02-740-8802